러시아 연해주 농업 진출 전략 *

배 상 두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농무관)

1. 연해주 농업의 개요

1.1. 농업 여건

연해주 등 극동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농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화제 중 하나는 거대한 국토 면적에 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광활한 토지보다는 먼저 토지의 법적인 문제부터 서술하며 풀어볼까 한다. 특히 러시아는 극히 최근에야 토지 소유권이 도입된 국가로 2001년 토지법이 제정되어 토지의 사유화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이다.

1.1.1. 토지사유제도 도입과정

러시아는 2001년 토지법 제정 이전에는 모든 토지는 대체로 국가나 공익단체만이 소유하는 체제라고 이해하면 된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비에트 체제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짜르라 불리는 러시아 황제나 귀족들만 대규모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농노로서 농장에서 일하는 존재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며,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볼셰비키혁명으로 소비에트체제가

* (baesd66@naver.com).

들어선 이후 러시아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이루어졌고 토지도 모두 국가가 통제하였다. 토지 중 농지는 국영농장이나 집단농장을 건설하여 대부분의 지역주민들도 국영농장이나 집단농장에서 일하도록 되었다. 1991년 소련의 개혁을 추진하던 고르바초프를 축출하려는 쿠데타를 시작으로 소련이 해체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소련의 해체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러시아연방이다. 러시아연방은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과거 소련시절의 이념적·제도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전환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토지 사유화 문제도 러시아연방의 옐친 대통령시절부터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쟁을 겪었으며, 푸틴정부가 들어선 2001년에야 겨우 마무리되어 토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1.1.2. 농지제도의 주요 특징

2001년 토지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토지사유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농지소유는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하는 대신 임대를 통해 농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외국투자법인의 농지소유는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외국자본의 투자도 현지 투자관련 규율에 따라야 하는데 현지 자본과의 합작회사(Joint Stock Company)를 만들어야 하며, 합작회사 설립 시 자본 출자비율을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투자제도는 외국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지 농지의 소유권 다툼이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출자비율이 과반을 넘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다.

또 농지제도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농지의 등기 문제이다. 농장 소유주가 땅을 확보하면 등기하여 권리를 확실하게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농장들은 등기를 하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짓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의 해체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다.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의 구성원들은 농장이 정부 지원에 따라 유지되었으나, 정부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많은 농장 구성원들이 농장을 떠나서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거주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한 농장의 해체과정에서 농장구성원들에게 농장의 땅과 부속물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는 증서(voucher)를 주었다. 이는 일종의 농장지분에 대한 권리증서와 같은 것이다. 현재의 운영되는 농장 중 일부는 농장 구성원들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지분을 인정하는 증서를 인수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 가능성이 많다.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의 해체 과정이 급격

하게 이루어져서 농장 구성원들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이전의 농장 구성원들이 새롭게 들어선 농장 소유자에 대해 자신들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자본이 현지에 투자할 경우 권리보호를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렇게 등기를 할 경우 법적 소송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등기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토지 측량 문제이다. 러시아는 토지가 광활한 만큼 토지 측량도 쉽지 않은 점이 있다. 과거 소비에트 시절에는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거나 공공단체 소유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 측량에 소홀한 면도 있지만 소비에트 체계가 붕괴된 이후에는 행정적인 역량문제로 농지의 토지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치된 농지의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여 등기를 할 경우 토지측량을 거쳐야 하는데 땅이 광활하고 오랫동안 버려둔 상태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토지측량을 해야 하기에 비용이 상당히 소용된다. 1ha당 최소한 2-3달러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기후 문제

러시아는 대체적으로 농사를 짓기 좋지 않은 한계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기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극을 최북단으로 두고 있어 작물별로 경작한계선과 많이 접하는 등 불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후조건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기후온난화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기후온난화를 인류 경제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난화가스의 배출증가에 따른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기후변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는 러시아의 추운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시베리아의 동토지대가 많이 사라지고 개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다른 나라들은 많은 피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추운 나라였던 러시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기후변화라는 개념부터 어렵지만 단순한 논리로서 추운 러시아 땅이 따뜻해지면서 농사에 좋은 땅으로 변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데, 답은 "아직까지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이다. 2010년 러시아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 엄청난 고온현상과 계속되는 산불을 겪었고, 곡물생산도 급감하는 바람에 곡물 수출 금지 조치까지 취해졌다. 2010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해 혜

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던 러시아도 기후온난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단순한 기후변화가 주는 함축성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연해주 등 극동 지역도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작물의 재배기간 연장과 같은 혜택 못지않게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이란 기후의 예측가능성 저하, 강우량 증가에 따른 여름철 저온현상으로 인한 작물 생장장애 등이다. 그런데 연해주의 토양은 점질성분이 많기 때문에 잦은 비는 물 빠짐이 좋지 않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배수불량은 연해주의 주작물인 콩의 생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 물류 문제

러시아는 광활한 토지를 가진 국가로 중국과 미국을 합쳐놓은 면적과 비슷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진 국가인 만큼 경제활동에도 물류비용이 심각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극동지역은 물류비용을 상당히 지불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몇 달 전 미리 예약해야만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way, TSR)는 모스크바까지 9,288km로서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노선이며, 시간으로는 10박11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서 서부 러시아로부터 농기자재를 운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며, 이러한 운송비용은 농기자재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물류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점이 TSR은 러시아 물류의 동맥으로서 곳곳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서는 역이 많다는 점이다. 이렇게 정차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실수로 물건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는 등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혹자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극동지역 주변으로부터 농기자재를 수입하는 방안을 이야기한다. 한국투자 농업기업이 한국으로부터 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 등을 가져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농기계의 경우는 우리 진출 농업기업들은 지금도 한국으로부터 상당수 가져와서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나 농기계와는 달리 비료, 농약, 종자는 쉽지 않다. 비료의 경우 국제적인 규모의 교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대체로 비료생산이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만 계획해서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요소비료의 경우 화학적인 생산 공정이 폭발물을 제조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무역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농약도 독성물질로 취급되기 때문에 국제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종자도 그 나라의 토지나 기후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적응성시험을 거친 이후 수입국에서 품종등록과 같은 수입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농기자재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번잡한 행정적인 절차와 서류를 거쳐야 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1.4. 인력 왁보

러시아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인구감소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극동 러시아 지역이다. 극동지역 인구는 1991년 805만 명에서 2010년 644만 명으로 약 20%가 감소하였다.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문제점은 많지만, 우선 소비시장 축소와 농업에서는 인력 부족이다. 소련붕괴로 인해 극동지역에서 서부 러시아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과 함께 농촌지역 붕괴로 인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고 유능한 인력은 더욱 서부 러시아로 더욱 더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농업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인구부족으로 중국에서 농업 인력의 상당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연해주의 경우 2012년에 약 6천명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를 농업부문에서 받아들였다.

농업 부문에서 중국 노동자 활용은 중국의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농업 진출이 초래하는 문제점 때문에 러시아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대안이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 부문 진출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허가를 얻지 않은 농약, 비료, 종자를 몰래 가져와서 농토를 황폐해질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중국 농업노동자들은 극동지역 주별로 따져볼 때 연해주와 유태인자치주가 가장 많이 받고 있지만, 하바로프스크주와 아무르주는 상대적으로 중국 노동력을 적게 받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유태인자치주는 1,226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농업부문에서 받아 주었으며, 하바로프스크주는 71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농업과 임업에서 받아 주었으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아무르주는 111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받아 주었다.

인력부족은 농촌사회 붕괴와 함께 젊은 인력의 서부러시아로의 유출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경제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책이 쉽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료, 농약 등과 같은 농기자재의 물류비용보다 극동지역 농업개발에 더욱 심각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5. 연방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의지

러시아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2012년부터 극동개발부를 출범시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부처를 만들었다. 그만큼 연방정부로서도 극동지역 개발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극동지역의 개발은 연방정부 의지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특히 인구감소와 같은 사회·경제구조적인 문제,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개발의 전제조건이 되는 해외자본 유치도 쉽지 않다.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주변국가로부터 많은 자본이 들어와야 하는데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과는 러시아가 전쟁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서 새로운 동북아시아 평화모델이 정착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일본과 러시아는 북방 섬 문제로 아직 본격적인 화해무드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도 북한과의 화해분위기 조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독도문제로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연방정부의 개발의지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 투자환경 개선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연해주 농업의 가능성

2.1. 농지 확보용이

연해주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 지역은 농지 확보가 쉽다. 소련시절 농지의 30-40% 수준만 경작되고 있어 연방정부든 지방정부든 농지 임대의향을 가진 외국기업들을 환영하고 있다. 놀고 있는 유휴농지를 경작해주고 임대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니 더 없이 좋은 투자자인 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개발된 농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개간이 전혀 되지 않은 황무지나 원시림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싸게 들 수 있다.

농업조사연구기관인 SovEcon이 발표한 것을 보면, 러시아 지역의 농지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농지 가격이 낮은 수준이다. 동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ha당 농지 가격은 독일이 11,300달러, 미국, 브라질이 9,000달러, 아르헨티나는 7,000달러, 동구권이

4,500달러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농지가 ha당 1,700달러, 로스토프 지역이 1,300달러, 볼로네즈 지역이 548달러, 사라토프지역 250달러로 조사되었다. 이곳들은 러시아에서도 농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서부지역인데, 농업환경이 열악한 극동지역은 이런 지역의 농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2.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통 인프라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지역 교통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했다. 특히 주요 농장마다 철도가 들어와서 농작물 수송이 원활하도록 만들었다. 연해주에 진출한 대부분의 우리 기업 농장들도 철도 지선과 연결된 철로가 농장창고와 연결된 경우가 많다. 철도와 함께 도로 여건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연해주는 농지와 농지사이에 비포장도로이지만 포장된 주요 도로와 연결성이 좋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항만이나 부두 등 항구시설도 우수하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다음가는 주요 항구로서 극동지역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이외에도 보스토치항, 슬라비얀카항, 자루비노항, 나호트카항 등 비교적 우수한 시설을 갖춘 항구들이 연해주에는 많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통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소련 붕괴 이후 대규모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 된 시설이 많고 곡물전용 수출항구가 없다. 연해주 등 극동지역에서 국영농장, 집단농장이 많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으로의 해외 자본유입이 제한적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극동지역에 제대로 된 곡물수출 전용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생산된 곡물 수송이 어렵기 때문이다.

2.3. 국제시장과의 인접성

연해주는 한반도와 인접해 있다. 이는 연해주에서 생산된 곡물의 한국으로 수송이 짧은 시간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이다.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오고가는 카페리선인 DBS를 기준으로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간은 카페리로 약 20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짧은 거리는 물류상 장점이지만, 현재 연해주에는 곡물수출 전용터미널이 없다는 점은 거리상 장점에도 불구하고 곡물을 벌크선에 하역할 경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연해주에서 한반도와 함께 일본과도 가까운 점은 큰 이점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박으로 일본까지도 약 1일 정도 걸린다. 또한 중국도 트럭을 활용하여 농산물 수송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다. 연해주 최대의 곡창지대인 우수리스크에서 차로 3시간이 걸리면 중국과의 국경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 등 대규모 곡물소비지와의 인접한 점은 연해주 농업이 해외자본이 투자만 잘 이루어지나면 대규모 곡물 생산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4. 쌀 생산 가능

연해주는 러시아에서 몇 군데 쌀이 생산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연해주에서 쌀이 생산된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어떻게 쌀을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점, 그리고 쌀이 생산되기에는 강우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해주 서북부 호롤군, 항카군을 중심으로 쌀이 생산되고 있다. 이 지역은 쌀을 생산하기에는 비가 부족한 지역이지만, 서북쪽의 항카호에서 물을 끌어와 벼를 재배하고 있다. 과거 소련 시절에 이 지역에 쌀이 재배될 수 있도록 대규모의 수리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쌀이 재배될 수 있다.

이렇게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점은 연해주 농업이 지닌 숨겨진 매력이다. 한국에서 주식으로 소비되는 쌀은 현재 겨우 자급이 이루어지는 수준인데, 향후 미래 남북한이 통일되는 시기에는 우리는 많은 쌀을 필요로 한다. 이럴 경우 쌀을 확보하기 위한 곳이 필요한데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연해주에서 쌀을 대량 생산해서 가져올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농업투자 대상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해주 농업 진출의 성공조건

3.1. 농지 보다 더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연해주에서는 농지 확보가 쉽다. 유휴농지가 많은 만큼 농지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우선 영농본부 확보이다. 영농본부는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종자, 비료, 농약, 수확물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영농본부가 없다면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장비를 보관할 수도 없고, 수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도 없다. 그러니 농지를 구입할 때 영농본부를 확보해야만 농사를 문제없이 지을 수 있다. 영농본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농업 인력 확보이다. 여기서의 농업 인력은 단순 노동

이 아닌 농업용 중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 인력이다. 넓은 농지를 이용해서 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농지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연해주로 농업 진출이 이루어졌을 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3.2. 농지의 특성 고려

우리나라에서도 농지는 비옥도나 도로의 인접성, 수리시설과의 연결성 등에 의해 가격이 많이 다르고 농지의 생산성도 다르다. 연해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르게 꼭 간과하기 쉬운 점이 연해주 토질 문제이다. 연해주는 물 빠짐이 좋지 않은 점질토가 많기 때문에 농지 구입이나 임대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배수 문제이다. 물 빠짐이 나쁜 평지보다는 물 빠짐이 좋은 약간 경사진 땅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에는 대형농기계가 들어가면 진흙땅에 빠져 버리게 되어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해주의 토지 특성상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이 쉽게 배수되지 않는 농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3.3. 콩이냐 옥수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연해주의 주 작물은 콩이다. 대부분의 농장에서도 콩 중심의 경작을 위해 모든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콩 중심의 경작은 문제가 많다. 우선 콩이 연해주의 주 작물로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콩은 연해주를 비롯한 만주지역이 원산지로서 이곳이 재배 적지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지만 콩 중심으로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지역이 농업이 계속되는 한 미래가 없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이유는 연해주에서 콩은 생산성이 낮다. ha당 1.2톤 정도인데 러시아에서 한개 농장이 5천 ha를 면적 기본단위가 되는데, 5천 ha를 모두 콩 생산을 하더라도 1만 톤 벌크선 1척을 채우기 쉽지 않다. 결국 국제적인 거래 규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생산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콩을 일정부분 재배할 필요성은 있다. 콩을 공기 중 질소를 고정시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등의 이점도 있고, 러시아는 콩 수입국이니 만큼 국내 수요처를 확보하기도 쉽다. 그러나 콩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한개 농장에서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로 생산되기 때문에 해외 농업투자를 통해 곡물을 확보한다는 목적에

는 부합할 수 없는 것이 연해주에서는 콩이다.

그러면 콩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콩을 완전 대체할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대체할 작물로는 옥수수가 있다. 옥수수의 문제점은 연해주 국내 수요가 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고 비료, 농약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당 연해주 평균 생산량이 약 4톤 정도인데, 이 정도면 5천ha 면적의 1개 농장에서 1만 톤 벌크선 2척 물량을 생산할 수 있다. 즉 국제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생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옥수수가 콩을 완전 대체할 필요는 없다. 이제까지 콩을 많이 재배하고 윤작을 위해서 보리, 귀리, 밀, 메밀 등이 주로 재배되었고, 옥수수는 상당히 소량으로만 재배되었는데, 향후 옥수수와 콩을 주된 작물로 하고 다른 작물을 윤작하는 시스템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일정한 규모의 축산을 할 경우 비료 대신 옥수수 밭에 뿌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축산분뇨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된 옥수수를 사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다.

3.4. 곡물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참여

연해주 농업에서 부족한 요소 중 하나가 저장시설이다.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지역에는 현대적인 사일로와 같은 저장시설이 부족하다. 과거 소련시절에 건설한 재래식 창고는 많지만 현대식 시설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곡물 저장시설 부족은 우리 농업기업들의 생산규모 확대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농업기업들이 확보한 넓은 농지에 곡물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싶어도 생산된 곡물을 저장할 시설이 없는 한 요원한 이야기이다. 산지엘리베이터 시설이나 곡물수출전용 터미널 건설이 없는 한 해외수출은 극히 제한적인 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해외자본 투자도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곡물터미널 건설은 이미 러시아 곡물공사가 연해주 자루비노항에 건립계획을 발표한바 있지만, 러시아는 행정문화가 모든 게 느리게 진행되는 나라이다. 계획이 언제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 정부가 연해주에 곡물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적극 참여해서 속도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형태는 정부 단독 투자보다는 국내 곡물수요기업들과의 컨소시엄(consortium)[1]으로 해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참여를 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과 함께 국내 곡물수요와

1)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일컬음.

해외 농업투자기업이 연결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연해주에 진출한 우리 농업기업들이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아직도 일부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양파 껍질 까듯이 한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면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연해주 진출 농업기업들의 한결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연해주는 어려움에 불구하고 매력적인 투자요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해주보다 기후여건은 양호한 동남아나 남미를 찾아가 투자할 수 있지만, 기후여건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교통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측면에서 우수한 지역이 연해주이며 한반도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해외농업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수준이지만 연해주가 가장 오랜 투자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공모델을 찾아내기에도 쉬울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물류에 있어서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연해주 농업진출은 충분히 해 볼만 시도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농어촌공사. 2012.「2012년도 극동러시아 해외농업투자환경보고서」. 11-B552149-000068-01. 한국농어촌공사.

참고사이트

러시아 극동관구전권대표부 (www.dfo.gov.ru)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 (www.primorsky.ru)